



날래다 / 얼굴 / 뚫뚫하다 / 녹다 / 쓰다 / 녹 이다

이해관계
이해관계

- 용감 : 용기 : 용단 : 용맹 : 용사 : 용퇴 : 무용 : 용기 :
- 용납 : 용량 : 용모 : 용서 : 용이 : 용인 : 용태 : 관용 :
- 미용 : 포용 : 허용 : 용렬 : 용재 : 등용 : 중용 : 용매 :
- 용액 : 용용 : 용질 : 용해 : 용도 : 용례 : 용무 : 용어 :
- 용역 : 등용 : 비용 : 작용 : 중용 : 채용 : 용범 : 용암 :
- 용융 : 용접 :

- 용감 : 씩씩하고 기운참=날래다
- 용기 : 씩씩하고 굳센 기운=날래다
- 용단 : 용기 있게 결단함=날래다
- 용맹 : 날래고 사나움=날래다
- 용사 : ①용감한 병사 ②용기가 있는 사람=날래다
- 용퇴 : 용기 있게 물러남. 벼슬 등을 선선히 그만둠=날래다
- 무용 : ①무예와 용맹 ②싸움에서 용맹스러움=날래다

날래다 勇

- 용기 : 물건을 담는 그릇=얼굴
- 용납 : 너그럽게 받아들임=얼굴
- 용량 : 그릇에 담거나 넣을 수 있는 분량=얼굴
- 용모 : 얼굴 모양=얼굴
- 용서 : 죄나 과오에 대하여 벌을 주지 않고 관대히 처리함=얼굴
- 용이 : 쉬움. 수월함=얼굴
- 용인 : 받아들여 인정(認定)함=얼굴
- 용태 : ①얼굴 모양과 몸맵시& 용모와 태도 ②병의 상태=얼굴

얼굴 容

- 관용 : 너그럽게 포용함=얼굴
- 미용 : 용모를 아름답게 꾸밈=얼굴
- 포용 : 너그럽게 감싸 받아들임=얼굴
- 허용 : 허락하여 용납함=얼굴

- 용렬 : 어리석고 변변치 못함=뚫뚫하다
- 용재 : 용렬한 재주=뚫뚫하다
- 등용 : 인재를 뽑아 씀=뚫뚫하다
- 중용 : ①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음 ②사서(四書)의 하나로, 중용의 덕과 하늘로부터 받은 인간의 본성에 대해 풀이한 책=뚫뚫하다

뚫뚫하다 庸

- 용매 : 용액을 만들 때에 용질을 녹이는 액체=녹다
- 용액 : 한 물질이 다른 물질에 녹아 고르게 퍼져 이루어진 액체=녹다
- 용용 : 물이 질펀히 흐르는 모양=녹다
- 용질 : 용액 속에 녹아 있는 물질=녹다
- 용해 : ①녹거나 녹임 ②기체 나 고체가 녹아 액체로 되는 현상=녹다

녹다 溶

- 용도 : 쓰이는 곳. 쓰는 법=쓰다
- 용례 : 전부터 써 온 사례=쓰다
- 용무 : 해야할 일=쓰다
- 용어 : 사용하는 말=쓰다
- 용역 : 생산에 필요한 노무(勞務)를 제공하는 일=쓰다
- 용의주도 : 마음의 준비가 두루 미쳐 빈틈이 없음=쓰다
- 등용 : 인재를 뽑아서 씬=쓰다
- 비용 : 무엇을 사거나 어떤 일을 하는 데 드는 돈=쓰다
- 작용 : 어떤 현상이나 행동을 일으킴, 또는 그 현상이나 행동=쓰다
- 중용 : 중요한 자리에 임명하여 부림=쓰다
- 채용 : ①사람을 뽑아 씬 ②무엇을 가려 쓰거나 받아들임 =쓰다



- 용광로 : 쇠붙이나 광석을 녹이는 가마=녹이다
- 용범 : 쇠붙이를 녹여 거푸집에 넣음, 또는 그 거푸집=녹이다
- 용암 : 화산에서 분출한 마그마, 또는 그것이 굳어서 된 암석=녹이다
- 용융 : 고체가 열에 녹아 액체 상태로 되는 일=녹이다
- 용접 : 두 쇠붙이를 녹여 붙이거나 이음=녹이다

